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4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12일 (음력 5월 29일) 목요일

광주·전남 지역화폐 도입 검토...실현 여부 관심

광주 시청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연간 2조원 이상의 자금 역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경제관료 출신답게 구체적인

전남도청



사례를 들어 지역화폐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광주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미장원 아주머니가 번 돈으로 목욕탕에 가고 목욕탕 아주머니는 빵집에 가고 빵집 아주머니는 그 돈으로 지역 슈퍼마켓에 가면서 돈이 돌아야 하는데 그

이용섭 시장 "자금 역외유출 심각해" 필요성 제기 김영록 지사도 공약 제시...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유통점과 백화점들이 돈을 광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 세계적 단위로 가장 싸게 물건을 구입해서 광주에 제공한다"며 "이렇게 역외로 유출된 돈이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그것이 광주경제를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언급한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상품권으로, 지역내 거래와 생산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지역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방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후보 시절 '내 삶이 바뀌는 생활공약'을 통해 '고향사랑 전남페이(J-pay)' 도입과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전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전남 새천년 상품권'을 연간 200억원 어치 발행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김 지사의 구상이다.

두 단체장이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화폐 도입은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가시화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면과 강점, 부작용 타시도 사례 등 자료를 취합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지역화폐는 현재 60여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도 내년에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할 예정이며 성남시에서는 아동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기로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은홍 기자



설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육군 장성이 9일 보직 해 임 조치된 것 등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여성들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 "성폭력을 피하려면 여성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남성중심적 사고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송 장관은 이날 성고충전문상담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리듬과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은 "아내가 딸에게 택시를 탈때리든지 등에 대해서 교육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시키더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아내에게 왜 딸을 믿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면 아내는 "여자를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송 장관 발언은 성범죄의 책임이 여성들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을 불렀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 등의 생각을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 = 뉴시스



제11회 정남진장흥물축제 오는 27일 개막한다

'물이 들려주는 장흥이야기' 주제

제11회 정남진장흥물축제가 오는 27일 막을 올린다.

11일 전남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읍 탐진강 수변공원과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펼쳐지는 올해 물축제는 '물이 들려주는 장흥이야기'란 주제로 1주일간 펼쳐진다.

올해 물축제 프로그램은 한층 다채롭고 강력해졌다.

게릴라 부대와 물싸움 교전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리퍼레이드 살수대점부터 지상 최대의 물싸움, 새로 도입한 지상최대의 물풍선 싸움, EDM 파티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축제장 중간에는 이색적인 휴게공간도 마련됐다. 모래사장 파리술, 썬 베드가 설치돼 해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이곳은 '장흥 플라주'란 이름으로 운영된다.

쉬는 동안에는 버스킹 공연, 스포츠 및 광육도 즐길 수 있다.

수중 포토존, 트리아트론으로 재미를 선사할 풀다리 미술관도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장흥물축제를 대표하는 새로운 킬



러 콘텐츠로는 지상 최대 물풍선 싸움이 주목받고 있다.

시원한 물이 담긴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빨강, 파랑, 노랑 풍선 20만 개가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물폭탄을 터뜨린다.

300드럼, 60톤의 시원한 물이 만들어낸 색색의 난장 파티가 관광객들에게 이채로

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올해 물축제는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과 세계형 축제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며, "올여름 정남진장흥 물축제에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즐겁고 신나는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폭염 특보 확대

광주기상청, 낮 최고기온 34도

전남도 9개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1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11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 광양·순천·보성·강진·해남·영암·진도·장흥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앞서 기상청은 광주와 나주·영광·화순·함평·무안·장성·구례·곡성·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연중 이틀 이상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 폭염 경보를 발효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최고기온은 무안 31.8도, 함평 31.5도, 영암 시종 31.3도, 광주 파기원 31.1도, 광양 31.1도, 곡성 30.9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9~34도 가량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에 유의해야 한다"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평소보다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고용환경개선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산업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